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T국의 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그 이유를 제시할 것

(2) 여론 조사 결과에서 추정되는 각 과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할 것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T국 정부는 세수(稅收)가 부족하여 ‘점포세’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다. 점포의 운영자에게 점포세를 부과하되, 운영자(임차인)와 소유자(임대인)가 다를 때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점포세의 과세 방식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하나는 ‘매출추산법’이다.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매달 특정일을 정해 놓고 담당 지역 점포에 직접 나가 그날의 매출액을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총매출액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 점포를 금·은·동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금 등급 점포에는 은 등급 점포보다 25% 높은 세율을, 동 등급 점포에는 은 등급 점포보다 25% 낮은 세율을 총매출액에 곱해서 세금 액수를 산정한다.

다른 하나는 ‘경기전망법’이다. 매년 초 정부가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여 그해의 세율을 결정한다. 경기 전망은 호황·관망·불황으로 구분하고, 호황일 때는 지난해보다 10% 높은 세율로, 관망일 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불황일 때는 지난해보다 10%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부과되는 세금 액수는 점포의 가격과 면적에 그해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T국 정부는 점포세 도입에 앞서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시행하였다.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은 두 가지 과세 방식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호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 대형 점포와 신축 점포 임대인, 상업이 덜 발달한 지방 점포 임차인이 더 선호하였다. 반대로 경기전망법은 관리직 공무원, 소형 점포와 낙후 점포 임대인, 상업이 더 발달한 수도권 점포 임차인이 더 선호하였다.

<의견>

①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 큰 비용이 들더라도 과세는 현실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다.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止揚)하여야 한다.

④ 실제로 수익을 얻은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치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⑥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성되는 편익에 비하여 과다하다면 그러한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⑦ 수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수익이 적을수록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평하다.

⑧ 조세 행정에서는 단순히 세수 충당뿐만 아니라, 과세로 인하여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⑨ 과세 방식을 결정할 때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⑩ 과세 방식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야 한다.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P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인 A, B, C의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지하고, 다른 두 견해를 반박할 것
- (2)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지지와 반박의 이유를 제시할 것
- (3) 자신이 지지한 견해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단, 극복 방안으로 자신이 반박한 견해를 활용하지는 말 것
- (4) 정치인 A, B, C의 견해는 견해A, 견해B, 견해C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P국은 세습 군주가 통치하는 왕정국가이다. 군주의 방탕한 생활로 국고가 탕진되어 최근 P국 전체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음은 세 명의 유력 정치인이 나눈 대화이다.

정치인 A: 현명한 군주를 만나는 건 요행에 불과하네. 왕정을 유지하는 이상 어리석은 군주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위험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

정치인 B: 자네 말이 맞아. 왕정을 대체할 정치체제가 필요해. 그런데 시민이 모두 통치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정치인 C: 그렇지. 그래서 나는 모든 시민을 대신하는 국가평의회(國家評議會)를 새로 설치해 통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네.

정치인 A: 나도 자네들과 같은 생각일세. 정작 중요한 건 국가평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겠지. 나는 피치자(被治者)의 동의에 기반한 통치야말로 이상적인 정치라는 신념을 갖고 있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국가평의회 구성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

정치인 B: 국가평의회가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찬성하네. 중요한 건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식견(識見)이야. 통치에 적합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 통치를 맡기는 게 옳아. 선출된 사람이 반드시 그런 역량을 갖췄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네.

정치인 C: 내 생각은 좀 달라. 자네들 견해대로라면 말만 번지르르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로만 국가평의회가 채워지지 않겠나? 국가평의회가 시민 모두를 대표하는 통치기구라면, 그 구성은 실제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어야 해. 그러려면 국가평의회 구성원은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 등을 비례적으로 반영해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맞아.

<의견>

정치인 A, B, C의 견해를 듣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감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 ① 시민의 눈치만 살피는 통치자는 눈앞의 문제에만 골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워.
- ②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통치에 참여해야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거야.
- ③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통치를 맡기는 건 자기 지배라는 정치의 이상에 맞지 않아.
- ④ 통치에 요구되는 덕목은 냉철한 이성이야. 무지한 통치자만큼이나 다수의 열정에 휘둘리는 통치자도 위험해.
- ⑤ 통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치자(治者)와 피치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민이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 ⑥ 통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
- ⑦ 제도를 설계할 때 이상만 좇으면 안 돼. 중요한 건 어느 제도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주는지야.
- ⑧ 동료 시민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하기 마련이야.
- ⑨ 통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해. 통치자는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해.
- ⑩ 왕정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우선은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야.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